

# 전남 농어촌 발암물질 지붕 철거 '어느 세월에…'

올 80억 들여 석면 슬레이트 2781채 제거 계획

총 11만6천채 … 年 3천채 철거해도 20년 걸려

전남도내 농·어촌지역의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463가구를

2781채를 철거할 계획이다. 가구당 철거비 288만원은 전액 예산으로 지원된다.

하지만 도내 슬레이트 건물은 모두 11만6000여채로, 이 가운데 순수 주택만도 6만3000여채에 이른다. 매년 3000여채를 철거하더라도 20년이 넘게 걸리는 셈이다.

올해도 사업비 80억원을 들여

기와지붕을 할 경우 350만원 가량이 드는 데다 주택 개·보수까지 하려면 최소 5000만원은 필요하다.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농·어민에게는 부담이 큰 만큼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 설치를 연계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해 지붕을 철거하면서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을 함께 한 경우는 1619채에 그쳤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주택 개량사업은 농·어촌 지역에서 주택을 개·보수할 때 연 3%(5년 거치, 15년 상환) 저리로 지원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고 지원을 상환과 함께 주택의 축사와 창고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해남 목포구등대 부근 낙조 전망대 조성

해남군 화원면 목포구등대 부근에 낙조 전망대가 조성됐다.

해남군은 목포구등대 부근의 해넘이와 경관을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낙조전망대(선셋 뷰어 포인트)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

군은 현재까지 17억원을 투입, 해안길을 중심으로 낙조 전망데크 7개소와 산책로 272m의 공사를 1차 완료했다.

이어 군은 월래마을앞 군부대 주변 해안로를 중심으로 8억원을 들여 152m에 산책로를 만들고, 전망데크 4곳을 오는 6월까지 설치한다.

군은 전망대와 산책로가 정비되면 바닷가를 끼고 돌며 절경을 관망할 수 있으며, 사진을 찍기 위한 포인트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목포구 등대에 전시관(등대 역사 체험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관광시너지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무력무력 잘 자라거라"

진도군 공무원과 주민들이 우수인 19일 진도군 임회면 여귀산에 황칠나무와 후박나무 등을 심고 있다. 서부 지역 방산림청은 4월 말까지 '봄철 나무심기 기간'으로 정하고 여의도 면적의 75배인 2만2000㏊에 52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진도군 제공)

## 따뜻한 날씨탓 … 양파 노군병 기승

이달 들어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무안군 현경과 운남, 청계, 함평 순불 등 양파 주산지에서 양파 노군병(露病)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표적 곰팡이병인 노군병은 작은 반점에서 시작해 잎 전체로 번져 잎이 구부러지고 뒤틀어지면서 고사한다.

한번 감염된 양파는 성장한다고 해도 알맹이가 제대로 여물지 않는 등 상품성이 없어 큰 피해를 냈다.

이들 지역은 양파 주산지로 수십 년간 양파를 주요 특산물로 재배하는 곳이다. 노군병은 토양에 잠복해 있던 곰팡이균이 기온이 올라가는

2~3월 전후로 어린 양파 잎을 노랗거나 연두색으로 변하게 하는 1차 감염으로 시작된다.

이후 노군병 포자가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주변 양파에 감염되는 2차 피해가 급속도로 진전된다.

무안군은 1월 중순 이후 날씨가 포근한 데다 5도 이상이면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특성상 피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0억8700만 원을 투자해 17곳에 1025㎾/일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남지역 양파 재배면적은 무안 2734㏊, 신안 1180㏊, 해남 958㏊ 등 모두 7714㏊로 전국의 52%를 차지한다.

## 광양시, '태양광 통합관제센터' 구축 운영

### 6월까지… 공공기관 설치 발전시설 효율적 관리

광양시가 공공기관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시청내에 '태양광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계획이다.

19일 광양시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사업비 70억8700만 원을 투자해 17곳에 1025㎾/일 용량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 발전설비의 감시

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실시간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출력과 운영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신재생에너지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시설을 유지 관리를 위해 지역경제에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종합 관제센터를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으며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 오는 6월 말까지

구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통합 관제센터를 구축하면 공공시설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실시간 발전량은 물론 지역의 일사량, 발전시설 이상 유무, 자원 정보·현황 등의 효율적인 관리로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양=박형진기자 pyj4079@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http://www.kwangju.co.kr)

## 2014 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 【학부 신입생 추가모집】

####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모집 단위	학과	모집 인원
인문	신학과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예능	음악학과 (피아노, 성악, 현악, 관·타악, 지휘, 오르간, 작곡, 클래식기타,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포크, 일렉],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성악송리아티 등)	○
총 계		OO

※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간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4. 2. 21(금) ~ 2. 24(월)  
· 전형일 : 2014. 2. 25(화) 오후 2시

■ 특별전형 · 전학과 : 지역인재양성 전형

[www.kwangshin.ac.kr](http://www.kwangshin.ac.kr)

광신 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500-710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 36

CJ CJ Hello비전

60 주연  
(1954~2014)

QR코드를 스캔하여  
자세한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국내 유일 240개 채널 무제한녹화  
"헬로tv 스마트" 출시!

지상파 및 VOD미제공 채널까지 모두 녹화가능  
동시방영 타채널 프로그램 녹화가능 외출시에도 스마트폰에서 버튼 하나로 녹화가능

가입문의 1855-1000

[www.cjhellevision.com](http://www.cjhellevision.com)



"고흥으로 신나는 우주여행 오세요"

4월 10~13일 항공축제

외계인 만들기 등 다채

"가족과 함께 고흥으로 신나는 우주여행 오세요!"

2014 고흥 우주항공축제가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고흥읍 박지성 공설 운동장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는 나로호(KSLV-1) 발사성공 기념 1주년을 맞아 '응답하라! 나로호'란 주제와 '고흥으로 떠나는 신나는 우주여행'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된다.

축제기간 중에는 나로 우주센터를 비롯해 우주과학관, 국립청소년 우주체험센터, 고흥 우주천문 과학관에서의 특수 연계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축제주진위는 이번 축제가 지난해에 흐령을 받았던 어린이 우주인 선발대회뿐만 아니라 창작

로봇 경진대회, 외계인 만들기 등 다양한 우주과학 체험전을 통해 재미와 교육이 어우러진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전남 씨름왕 선발전과 우주마라톤 대회도 함께 열린다. 이 밖에도 다양한 공연과 불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준비해 남녀노소, 군인과 관광객을 아우르는 축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축제주진위는 가족단위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지역축제로는 전국 최초로 축제장 모든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를 통해 '지붕 없는 미술관' 고흥의 이미지를 부각시키 나갈 방침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올해 축제는 2015년 '대한민국 우주항공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사전 예비축제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기자 giju@



여수 금오도 비령길·하화도에 출렁다리 설치

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꽃섬길'과 하화도에 출렁다리가 설치된다.

여수시는 사업비 8억원을 들여 빼어난 절경으로 연중 관광객들이 많지 않은 여수 금오도 '비령길'에 길이 42.6m, 폭 2m의 출렁다리를 다음 달 초 착공해 오는 상반기까지 공사를 마무리한 후 6월말 착공에 나선다.

시는 출렁다리 가설을 위해 환경부 및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과 협의를 통해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금오도 지구' 공원계획에 사업을 반영시

켜 추진한다.

이와 함께 '꽃섬길'과 유명한 하화도에도 출렁다리가 설치된다.

시는 20억원을 들여 하화도와 장구도를 잇는 주교량 140m와 접속탑방

로 1.4km를 조성한다. 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등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6월말 착공에 나선다.

여수시 관계자는 "교량이 완공되면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김정현기자 ckim@